

# 국내 일 종합병원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

홍 정 희(삼성서울병원 종양전문간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작 단계로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몇몇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기관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전문간호사를 임명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는 논외로 하고 병원이라는 현장에서는 현재 심장계, 신경계, 종양계, 감염관리, 당뇨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제도화 이전이기 때문에 국내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각 기관의 요구나 상황, 대상환자 영역의 특성, 전문간호사 개인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역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양 뿐 아니라 전체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최소한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업무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은 자격기준을 정하거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에도 기초가 될 것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 경험을 보고하여 (종양)전문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인적 구성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당시 2명의 종양전문간호사가 임명되었으며 2000년에 현재의 4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들의 임명 당시 평균 임상경력은 5.7년이었으며, 모두 종양내과병동 근무경력과 동일하였다. 학력은 임명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1명이었으며, 현재 1명이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 다른 2명은 석사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4명 모두 미국의 Oncology Nursing Society에서 부여하는 Oncology Certified Nurse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소속은 1차적으로는 간호부로, 2차적으로는 암센터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주로 암센터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수평조직이지만 선임자가 비공식적으로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병동과 외래, 고형암 환자와 혈액암 환자로 활동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   | 대 상 환 자                      | 총 임상경력 년수(전문간호사 경력 년수) | 학 력  |
|---|------------------------------|------------------------|------|
| 1 | 혈액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 일부 고형암 환자 | 11(6)                  | 석사과정 |
| 2 | 고형암 환자(입원 치료)                | 9(6)                   | 학사   |
| 3 | 외래 내원환자 & 외래 항암화학요법 환자       | 10(1)                  | 석사   |
| 4 | 고형암 환자(입원 치료)                | 7(0.5)                 | 학사   |

## 2. 역 할

여러 문헌에서 보이듯이 임상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는 몇 가지 틀이 이용되고 있다. 많은 저자들은 핵심적인 역할로 임상실무 전문가, 교육자, 자문/협진자, 연구자 등 네 가지의 역할에 동의하고 있으며, 저자에 따라 지도자, 관리자 또는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추가하고 있다. 실제로는 한가지의 업무에 여러 역할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 다른 역할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병동과 외래의 고태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강조점에 따라 핵심적인 네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임상실무 전문가로서의 역할

이 역할은 환자와 가족에 대한 간호를 사정, 계획, 수행, 평가하는 것과 상급수준의 지식과 기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일반간호사의 역할모델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항암제 처방 & 투여시 간호와 관련된 관리, 부작용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개별교육을 수행하고 항암제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교육내용에는 항암화학요법의 필요성, 목적, 사용 약제, 투여방법, 치료기간과 부작용의 종류, 자가간호, 예방법, 대처방법 그리고 식생활이나 운동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자체 제작한 소책자를 도구로 사용하며, 1회 교육시 소요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다. 혈액종양내과 소속의 암환자는 전문간호사의 이 같은 교육과 동의서가 시행되지 않으면 항암제 투여를 시작하지 않으며, 주치의나 병동의 담당간호사를 통하여 의뢰된다.

치료과정 중 항암제 regimen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을 시행한다.

②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의 치료 regimen을 확인한다. 항암제의 용량과 투여방법, 일정, 진토제나 수분공급 등의 보조적 치료계획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항암제의 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하고 확인한다.

③ 퇴원 후 부작용이나 질병의 진행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중재한다. 중재는 환자나 가족의 전화보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래나 상담실로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먼저 증상의 원인과 중증도를 사정하며, 중증도에 따라 자가간호교육이나 관찰을 지시하기도 하고, 응급실이나 외래 방문 또는 지역병원의 방문을 지시하거나,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받은 처방을 시행하기도 하고, 관련 부서에 협진을 의뢰하기도 한다. 중재 후 환자상태에 대한 추후관찰과 평가를 수행한다.

발생빈도와 중재빈도가 높은 증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오심/구토/식욕부진/구내염/설사/변비 등 항암제의 일반적인 부작용
  - 중심정맥관의 감염/폐색/손상/혈전증
    - 감염시 미생물 배양검사, 드레싱을 시행하며, 감염내과로 협진을 의뢰한다.
    - 폐색시 원인에 따라 적절한 복구처치를 수행한다.
    - 손상 발생시 복구기능 여부에 따라 수선 kit를 이용하여 수선한다.
    - 혈전증과 관련된 증상일 경우 영상의학과로 협진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 통증
    - 주치의에게 보고한 후 PCA를 포함하여 진통제의 처방을 수행하거나 용량을 조정한다.
    - 환자에게 PCA 관리법을 교육한다.
    - 경우에 따라 가정간호과나 통증클리닉으로 협진을 의뢰한다.
    - 진통제의 부작용이나 통증조절 효과를 평가한다.
  - 영양 문제
    -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이나 가정간호과를 통한 영양제 투여를 수행한다.
  - 복수, 흉수, 중앙응급증상 등 질병의 진행과 관련된 증상
    - 환자의 증상에 대한 사정과 진단 후 관련 진료과나 응급실로 의뢰한다.
  - 수혈(적혈구, 혈소판)
- ④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처방과 관련된 관리를 수행한다.
- 항암제 처방을 입력한다.
  - 보조약물의 투약과 용량을 조정한다(진토제, CSF제제 및 기타 약물).

- 투약 전 환자를 사정하여 부작용 등 진료시 누락된 문제가 발견되면 보고한다.
- 용량과 투약 일정, 검사일정, 보험적용문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 특수 약물주입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를 교육하고, 조제와 관련된 정보를 약국에 제공한다.
- 경과기록지를 작성한다.
- 지역병원 의뢰시 투약지시전을 작성하고, 해당 기관에서 요청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항암화학요법 교육이나 부작용 관리시의 교육 이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성생활 등에 대한 환자의 상담에 응하며,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의에 상담을 제공한다.
- ⑥ 새로운 카테터나 약물주입기구 도입시 실무 적용성이나 문제점을 평가하고 테스트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지침을 만들고 간호사를 교육한다.
- ⑦ 암환자 간호 실무의 발전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암환자 간호 실무의 표준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최근 연구결과를 파악하고 관련 진료과의 의료진과 병동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암환자 관리 지침서를 제정하여 보급한다.

## 2) 교육자로서의 역할

주로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 기타 의료인,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한다. 대상자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암환자 간호 보수교육과 4주 과정의 전문간호과정의 프로그램 개발과 주요 연자로 참여한다.
  - 중앙내과병동을 비롯하여 암환자가 많이 입원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무중 심의 package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중심정맥관, 약물주입기구, 항암제 신약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현장교육을 시행한다.
- ② 여러 간호대학의 대학원생이나 타병원 간호사의 견학이나 교육 요청에 응한다.
- ③ 간호대학 교수 임상연수에 참여한다.
- ④ 의대생 실습강의나 기타 의료인의 교육 요청시 응한다.
- ⑤ 원외 주취 보수교육이나 간호학술대회에 연자로 참여한다.
- ⑥ 유방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방자가검진 교실을 운영한다.
- ⑦ 환자와 간호사의 교육 도구로 활용할 책자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 제작한다.

## 3) 자문/협진자로서의 역할

전문간호사는 암환자의 치료나 간호, 정보의 습득과 교환, 실무의 효율성 향상, 정책개발 등을 위해 자문이나 협진을 의뢰 받기도 하고 의뢰하기도 하는데, 간호부서(병동, 외래, 가정간호과, 타 전문간호사, 간호교육과 등), 의료진, 관련 행정부서나 진료지원부서(약제부, 보험심사과, 원무과, 사회사업실, 홍보과, 기획과, 각종 검사실 등), 외부 기관(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골수은행협회, 타 병원 등)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앞서 소개한 임상실무의 많은 부분이 자문이나 협진의 형태로 수행되기도 한다.

## 4) 연구자로서의 역할

이 부분의 역할은 크게 간호연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의학연구와 관련된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의학연구 관련 업무를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경험과 전문성, 조정능력이 요구되며 현재 연구관련 업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포함하기로 한다.

### ① 간호연구

- 최신 연구결과를 해석하여 임상실무에 적용하거나 암환자 간호 표준에 반영하여 보급 되도록 한다.
- 병동 간호사와의 공동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 간호연구를 직접 설계하고 수행한다.

② 의학연구

- 국제 연구 또는 국내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 원내 임상연구에 참여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문간호사 중 담당자를 결정하며, 연구팀 내에서의 역할분담이나 관련 부서(약제부, 보험심사과, 임상시험위원회, 원무과, 병동이나 외래 간호사, 검사실)간의 업무 조정이나 정보제공을 수행한다.

- 연구가 시작되어 연구자에게서 환자 의뢰가 오면 대상환자의 선정기준을 확인한다.
- 환자에게 전반적인 시험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여 환자가 자의로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험약의 처방을 관리한다.
- 연구계획서에 따라 시험일정과 검사일정을 관리하며, 부작용과 검사결과, 병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약물투여 여부와 용량 등을 조정한다.
- 증례기록서를 작성한다.
- 부작용 보고서, 중간보고서, 시험기간 연장 신청서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험 의뢰기관과 원내 임상시험 위원회에 보고한다.
- 필요시 시간제 연구원의 선임과 업무 위임, 관리를 수행한다.
- 표준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료진의 자료 요청시 제공한다.

5)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

- ① 앞서 소개한 암환자 관리지침서 등 간호표준을 수립하여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거나, 암환자 간호 저널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반영하여 실무의 향상과 변화를 유도한다.
- ② 환자 자조모임의 결성을 주도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환자 간호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현재 유방암 환자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자조모임이 계획되고 있다.
- ③ 대한 중앙간호학회와 조혈모세포이식 간호사회 회원으로서 전문직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6) 기타

암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각종 암센터 주최 행사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실무를 진행한다.

이상이 삼성서울병원 중앙전문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병동과 외래 고형암 환자를 담당하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 6년 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암환자 영역은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또한 간호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간호가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며, 그 간의 역할이 중앙전문간호사 또는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데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위에 소개한 역할이 전문간호사의 고유한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는 임상의 요구가 제도를 앞선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과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주요 한계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중앙전문간호사의 제도화가 불투명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경험이 중앙 전문간호사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며, 중앙전문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기를 희망한다.